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VOL 116. 가을호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2023 가을호
VOL. 116

발행일 2023. 10.
 발행처 경상북도교육청 소통협력관
 발행인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총괄 소통협력관 홍종선
 기획 홍보담당 이상철
 편집집 주무관 서옥란
 편집위원 농암초등학교 주무관 김수연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주무관 김선옥
 경상북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영양교사 전진경
 주소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연락처 054)805-3063
 누리집 www.gbe.kr
 디자인/인쇄 탐디자인 054)854-5569



13



21



24

-  www.gbe.kr/news
-  www.instagram.com/gbe.gyo6
-  blog.naver.com/2mcool
-  www.facebook.com/gogogbe
-  www.youtube.com/검색창 ▶ [맛쿨멋쿨TV](#)
-  카카오톡 ▶ [경상북도교육청 검색](#) ▶ [채널 추가!](#)

-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발행하는 <따뜻한 경북교육 소식지>는 www.gbe.kr/news (경북교육소식 ▶ 소식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오른쪽 지면 상단에는 시각장애인 및 외국인들을 위하여 보이스아이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무료 소식지(비매품)입니다.

표지 이야기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천문대 남쪽하늘 일주운동



CONTENTS

○ 경북교육 들여다보기

- 04 전국 최초,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 프로젝트는 순항 중
- 06 한국 전래동화가 과테말라 국정교과서에 실렸다고?
- 08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 K-늘봄학교 지산초 현장을 가다
- 10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학교 업무 디지털 혁신

○ 교육현장 이야기

- 12 유, 초, 중, 고 교육현장 이야기

○ 경북아이 뽐내기

- 18 포항영신고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은메달 3개 획득
- 19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 바이오 분야의 최강자 입증
- 20 경북교육청, 제44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맹활약’
- 21 금빛 꿈을 쏘다! 예천동부초, 양궁의 그랜드슬램 달성!
- 22 북삼고 ‘수목원팀’ 전국청소년시 창의경진대회서 1위 수상!
- 23 흡연 예방 우수 작품 수상작

○ 공감 더하기

- 24 사제동행 해외 체험 연수 소감문 ‘기적 같은 일이에요’
- 26 별을 보며 나와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다
- 28 세대 간 소통의 시간 ‘소통 나누리’

○ 생생정보 나누기

- 30 가을에 듣는 청명한 우리말 이야기

따뜻한 경북교육 소식에 대한
원고와 기사를 기다립니다.
홍보하고 싶은 사례, 학교 소식,
미담이 있으신가요?
교직원이나 학부모 글·사진·그림 등을
소식지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seokok7@gbe.kr

☎ 054)805-3063



전국 최초, 경북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 프로젝트 순항 중



경북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 추진을 위해 '경북교육청 입학추진단'을 꾸리고,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4개국 56명의 학생을 외국인 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아세안 국가의 유학생들에게 글로벌 직업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기술 인력 부족으로 구인난을 겪는 기업들은 해외 우수 인재를 채용해 글로벌 경쟁에서 성공하도록 돕는 플랫폼이다. 더불어 학령 인구 감소로 입학 충원율이 떨어진 직업계고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한 자구책이기도 하다.

* 사업 추진 직업계고등학교(8교): 한국해양마이스터고, 의성유니텍고, 신라공업고, 경주정보고, 경주여자정보고, 명인고, 한국국제조리고, 한국철도고



입학추진단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태국 방콕, 7월 25일 베트남 호찌민과 다낭, 7월 28일 베트남 하노이, 9월 8일 인도네시아의 현지 교육기관*을 방문을 이어가며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 유치를 위한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9월 8일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행사를 미루고 자리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교육부 대외협력국장(아낭 리스탄토 세마)은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과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배경에는 탄탄한 직업교육이 있다고 들었다. 직업계고의 오랜 비결과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공유에 감사드린다.”라며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제안했다.



경북의 직업교육은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나노기술 인력양성 사업 등 현장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최상의 교육과정이다. 이를 통해 해외의 우수한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기르고 산업체 맞춤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태국 교육부 및 방콕 직업교육청, 호찌민 노동보훈사회부, 다낭 및 하노이 교육훈련청, 인도네시아 교육부





한국 전래동화가



과테말라의 국정교과서에 실렸다고?

과테말라는 농업에 기반을 둔 중앙아메리카의 작은 개발도상국으로 현재 경제 도약을 위해 사회 구조, 산업 환경, 교육, 치안 등 여러 방면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런 과테말라 초등학교 2~6학년 국정교과서에 2020년부터 우리나라 전래동화 <토끼와 거북이>, <의좋은 형제>, <해님 달님>, <흥부와 놀부>, <단군신화>가 실렸다. 중학교 국정교과서에도 우리나라의 소개, 한글, 한복, 한식, 한국의 경제발전 등이 소개되어 있다고 한다.

과테말라 초·중 국정교과서에 우리나라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수록된 사연은 무엇 때문일까?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겠지만 특히 경북교육청과 과테말라 공화국 간의 이러닝 세계화의 하나로 추진 중인 '교류 협력국 교육 정보화 지원'사업 때문이 아닐까 한다.

경북교육청은 글로벌 지식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 한국의 국격 제고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과테말라 공화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18년 동안 변함없이 교류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매년 과테말라의 선도 교원을 초청해 교육 정보화 노하우 및 ICT 활용 방법 등을 연수하고 컴퓨터 등 정보화 장비를 무상 제공하여 과테말라의 교육 정보화 환경 구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힘들었던 시기에도 이러닝 세계화 교사단(LEAD)의 노력으로 과테말라 교원에게 원격 정보화 활용 연수를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8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교육 정보화 교류 협력을 위해 과테말라공화국을 방문해 정보화 기자재 299대를 기증하고 선도 교원 현지 교육 정보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새로운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였다.

또한 방문단은 산토도밍고국립고등학교 등 3교를 방문해 경북교육청이 지원한 컴퓨터를 점검하고, 정보화 기자재 수업 활용 방안 등을 컨설팅하였다.

환영식에 참석한 컴퓨터학과 루비아 에티레라양(고 3학년)은 “과테말라 내에서 최고의 컴퓨터 환경을 구축해 준 것에 감사드리며, 코딩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국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경북교육청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 활용 기술과 교육 정보화 성공 노하우를 전수해 과테말라의 정보 격차 해소와 교육 여건 개선에 꾸준히 이바지해 왔다. 앞으로도 개발도상국 ICT 수준 제고와 국제사회 기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늘봄처럼 따뜻한 학교, K-늘봄학교 지산초 현장을 찾다.

지산초등학교 교사 박선택

지산초등학교는 전교생 41명의 소규모 학교이다.

구미 시내에서 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지만 주위가 산과 논으로 둘러싸여 있어 학교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매우 평화롭고 인상적이다. 올해 지산초등학교는 도내 41개 초등학교와 함께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른 아침 출근을 하면 매일 아침 7시 40분부터 제공되는 간편식을 먹은 학생들이 강당 앞에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강당 문을 열자마자 우르르 달려 들어가는 아이들. 각자 몸을 풀면서 10분 동안 준비운동을 마치면 신나는 아침 스포츠 한마당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아침 스포츠 한마당은 학생들이 언제나 또 하고 싶다고 노래 부르는 종목인 축구, 배드민턴, 피구를 하거나 평소 자주하기 어려운 뉴스포츠, 하키 운동을 함께 한다.

같은 시각 도서관에서는 그리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차분하게 앉아 그림 그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자신이 그리고 싶은 이미지를 본떠서 따라 그리기도 하고, 동그라미 3개와 선 5개로 선생님을 그렸다고 그림을 보여주며 자랑하기도 한다. 또 그림 그리기에 흥미를 잃은 아이들은 스킨자수에 푹 빠져있다. 전교생의 반이 참여하는 아침 늘봄 프로그램은 한 학기 만에 학생들의 일과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학생은 여름방학을 종일 심심하고 지루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다. 하지만 공부, 더위, 핸드폰 콘텐츠에 지친 학생들을 시원하게 해 줄 여름 놀봄 물놀이 캠프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학교 운동장에 대형 물놀이장과 어린이용 미끄럼틀을 설치하여 워터파크 뽀뽀는 강렬한 물맛을 선사했고, 커다란 파도 대신 친구와 물장구를 치면서 만드는 잔잔한 물결에 아이들은 더 짜릿한 웃음과 행복을 경험하였다.

지난 수학여행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한 학생이 “쉬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대답하였다. 방과후학교 수업과 학원을 다녀온 후 저녁 식사와 숙제를 마치면 늦은 밤 10시가 되는 학생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쉬를 원했다. 이렇게 지친 학생들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 지산 놀봄쉼터이다. 선생님들의 전용 공간이었던 회의실을 아이들이 아침 간편식을 먹거나 쉬는 시간에 교실을 벗어나 편하게 쉬고 또 친구들과 소통하는 장소로 꾸몄다. 지산 놀봄쉼터는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여유를 즐기는 학생들의 ‘힐링 스페이스(Healing Space)’로 자리 잡았다.

방과후학교가 끝나면 친구들은 모두 학원에 가지만 어머니가 퇴근하는 늦은 시각까지 학교에 남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한 학생이 있다. 올해 시작된 저녁 놀봄교실에서 동생들, 선생님과 함께 저녁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악기를 직접 연주하며 즐겁게 지내고 있다. 무엇보다 음악을 좋아하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불리고 기댈 곳이 필요한 사춘기 아이에게 이 시간은 너무 소중한 따뜻하다. 매일 웃고 명랑하게 지내는 아이들이 모두 같은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봄의 새싹 같은 아이들에게 마음 불일 공간 하나,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수업 하나라도 더 주어져 훗날 멋진 어른이 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Digital...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학교 업무 디지털 혁신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경북미래교육정책연구단이 활동한 결과물로 '2030 미래사회의 도래와 경북교육의 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보고서에는 5가지 주요 미래교육 이슈별 과제 중 하나로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을 담고 있으며, '2023 ~ 2026 경북미래교육 계획'에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면서 올해를 학교업무 디지털 전환 원년의 해로 선언했다. 학교업무 디지털 전환은 학교지원센터 인력 100명이 일대일로 교직원 100명을 지원하면 최대 100명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날로그 방식이지만 디지털 방식은 1개 프로그램으로 무한한 대상을 동시에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은

-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
- ▲교무실 가고 온무실 온다 '온무실 프로젝트'
- ▲종이 서류 아웃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온라인 제출'
- ▲클릭하면 예약 완료 '학부모 상담 예약 시스템'
- ▲하나면 충분하다 '대면 연수 원스톱 플랫폼' 사업도 펼쳐가고 있다. 또한
- ▲온실이에게 물어보세요 '온실이 GPT'
- ▲선생님을 위한 모든 나눔 '따알기 마켓'
- ▲불편 공문 이제 그만! '불편 공문 알림 시스템'
- ▲인공지능 활용 실험실 'G-AI Lab'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추진 내용을 보면, 학교 업무 디지털 콘퍼런스 개최 및 학교 업무 디지털 전환 연구 동아리 공모와 카카오톡 채널 VoS 플랫폼 상시 운영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유와 협력을 위한 온라인 교무실을 운영하며, 연수 책자·질의응답·만족도 조사·강의 평가 등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대면 연수 원스톱 플랫폼'을 운영한다.

이어서 ChatGPT의 API를 활용해 온무실.net에서 구동되는 채팅창으로 로그인 필요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온실이 GPT'와 시중의 중고 거래 사이트처럼 선생님을 위한 모든 나눔이 가능한 온라인 장터인 '따알기 마켓', 불편한 공문서를 신고하면 즉시 업무 담당자가 공문 생산자에게 자동으로 안내하는 '불편 공문 알림 시스템', 네이버 클라우드와 AI 활용을 위한 가상의 실험실을 구축해 AI와 선생님이 함께 학습 결과물을 만들어 이를 현장에 보급하고 환류하는 'G-AI Lab'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현대사회는 갈수록 세분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선생님들의 업무도 마찬가지이다. 선생님들이 좀 더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모두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이다.

지금까지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경북교육청의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학교 업무 디지털 혁신'이라는 정책사업은 '대한민국 지식 대상'에서 2년 연속 행안부 장관상을 받을 만큼 혁신적인 사업으로 손꼽힌다.

아무도 성취하지 못한 새로운 성과는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듯이 앞으로 경북교육의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더욱 큰 성과가 기대되는 이유이다.



SCHOOL NEWS

꿈빛유치원

'지구사랑 나눔 플리마켓'에 놀러오세요!

경북 안동 꿈빛유치원은 지난 9월 6일 바깥 놀이터에서 원아 117명과 학부모,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구사랑 나눔 플리마켓'을 열었다. 이번 플리마켓에서 원생들은 각 교실에서 광목천을 이용해 포토존과 현수막 등 제로웨이스트 제품을 직접 만들어, 지구를 살리는 방법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로웨이스트(zero waste)란 말 그대로 일상 생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포장 및 자재를 태우거나 토지, 해양, 공기 등으로 배출하지 않고 책임 있는 생산, 소비, 재사용 및 회수를 통해 모든 자원을 보존하는 활동을 뜻한다. 환경문제가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아이들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까지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플리마켓에 참여한 학부모는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제로 웨이스트 제품을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서 더욱 의미 있고, 지역 주민도 함께 참여해 환경보호 실천에 대해 널리 알릴 수 있어서 좋았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영주서부초병설유치원

꼬마들의 안전 체험 교육 현장

영주서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생들은 9월 12일 경북소방본부에서 주관하는 안전 체험 교육을 받았다. 실제 재난 현장과 유사한 체험 차량을 이용해 아이들이 실제 생활에서 위험에 닥쳤을 때 대처 방법을 익혔다. 차량의 내부뿐만 아니라 실제 지진 강도를 재현해 내, 흔들리는 차량에서 탈출하는 지진 체험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엘리베이터와 지하철에서 비상 탈출하기, 화재 발생 시 대피하기, 소방 안전교육 영상 시청하기 등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몸소 익혔다.

한 원생이 “애들아!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흔들려서 무섭지? 딱딱한 책상 밑으로 빨리 들어가 몸을 보호하자!”라며 친구들을 이끄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다. 자칫 무서울 수도 있는 상황에서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대피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인 안전 체험 교육이었다.





공검초등학교

Fun English Bus 타고 떠나는 세계 여행

'Fun English Bus'가 9월 8일 조용한 상주의 작은 학교, 공검초 친구들을 찾아왔다. 'Fun English Bus'는 경북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영어체험 교실로, 원어민 선생님이 따로 없는 농어촌 소규모학교를 선정해 원어민 선생님과 한국인 코디네이터를 통해 영어교육을 제공하는 영어 체험학습용 차량이다.



'Fun English Bus' 내부를 들여다보면, 45인승 버스의 좌석을 모두 없애고 토틀런트 존(다양한 직업 소개, 영어 노래 배우기), 문화 존(세계 여러 나라의 지리, 문화, 의식주 탐구), 프로젝트 존(프로젝트형 수업을 통한 태양계 원리, 신재생 에너지 탐구 활동), 시장 존(물건 사고팔기) 등 다양한 영어 체험 활동 공간으로 꾸며져 있는 걸 알 수 있다. 이는 어떤 곳에서도 공간적 제약 없이 이 버스 하나로 다양한 영어교육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날 공검초 친구들은 'Fun English Bus'에서 원어민과의 대화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영어를 친숙하게 만들어 주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들을 진행했다. 이처럼, 앞으로 'Fun English Bus'가 경북교육이 이뤄지는 어느 곳이든지 누비며,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유익한 시간을 학생들에게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성주초등학교

김천 상무 FC 축구 선수와의 만남

9월 1일 성주초등학교 꿈빛도서관에서는 조금 특별한 행사가 진행됐다. 바로 '프로 축구 선수와의 만남' 이 이뤄진 것이다. 성주초등학교는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을 위해 <네이마르>,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 <베스트 일레븐> 등 다양한 축구 잡지를 구독하고 있다. 직접 프로 축구 선수들을



만나도록 하기 위하여 김천 상무 프로축구단의 사회공헌활동인 '학교로 오슈웅' 사업을 신청하였다. 축구를 좋아하는 성주초 학생들은 김천 상무 프로축구단 김민준, 윤석주 선수와 함께 스트레칭, 패스, 드리블 훈련, 드리블 슈팅 게임, 미니 축구 경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축구의 기본기를 익히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선수들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 축구 선수라는 꿈을 이루기 위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꿈을 향한 열정과 노력을 더 키울 수 있었다.

윤석주 선수는 "축구를 잘하는 방법은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축구를 먼저 좋아해야 하고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해요. 저는 6학년 때 리프팅을 3,000번 했어요."라며 성주초 축구 꿈나무들의 꿈을 응원하였다.



SCHOOL NEWS

청량중학교

중국 동천시에도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끊겼던 다리가 다시 연결됐다. 청량중 3학년 학생들이 9월 6일부터 10일까지 3박 5일의 일정으로 자매결연을 한 중국 동천시의 징핑중소학교와 국제교류 행사를 위해 중국으로 떠나면서 다시 이어진 다리다. 한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대면 국제 교류가 재개된 것이다.

청량중 학생들은 징핑중소학교를 방문하여 교실 생활 체험, 문화 체육 교류 행사 등을 하며 징핑중소학교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며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진시항 유적지, 동천박물관 등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보는 체험을 하며 세상을 더 폭넓게 바라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었다.



청송고등학교

담배 연기 없는 학교, 건강한 학교 만들기

청송고는 9월 4일부터 8일까지를 흡연 예방 교육주간으로 정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금연을 실천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특히, 교직원들보다 학생들이 앞장 서서 진행하는 행사라 더 깊은 뜻을 가진다. 학생회를 필두로 금연 서약서를 낭독하고, 학생 대표로 전교 회장은 평생 흡연하지 않음을 굳건히 다짐하며 담배 모양 자르기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본 행사에 참여한 전교 회장은 "학생회가 주도적으로 친구들에게 흡연하지 말자고 얘기해주는 알리미 역할을 한 것 같아 뿌듯했고, 흡연 예방 활동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흡연 예방 교육주간에 실시한 '흡연 예방 N행시 짓기' 문예 행사는 청소년 금연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들이 직접 구성하고 진행한 행사인 만큼, 건강한 학교 문화가 계속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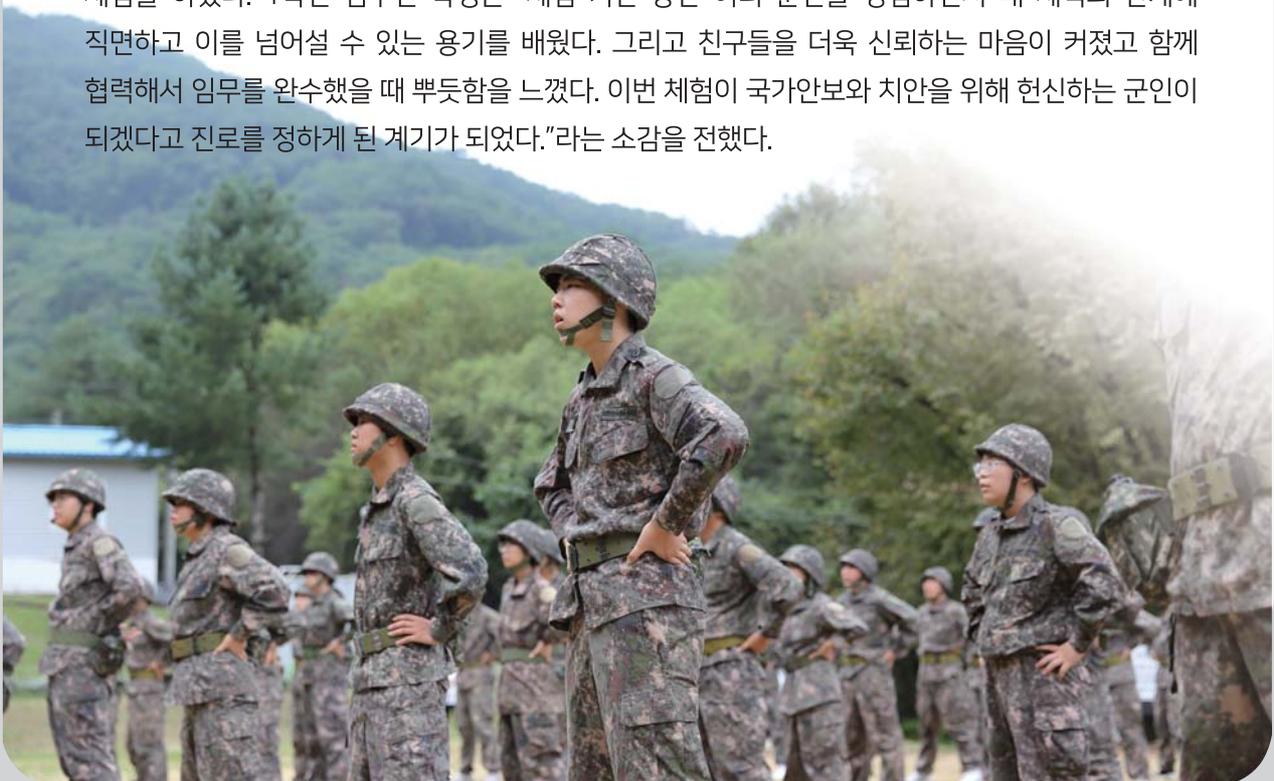
함창고등학교

특공! 용기와 기백, 단합의 군인 정신을 배우다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함창고등학교 1학년 학생 86명이 육군 2군단 702 특공연대로 2박 3일의 병영 체험을 받았다.

이번 체험은 강원도에 있는 육군 2군단이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1950년 7월 15일 함창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창설된 인연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 인연으로 2군단과 함창고등학교는 2002년 자매결연을 맺고, 2004년부터 해마다 병영 체험에 참가하고 있다.

입소식을 마친 학생들은 책으로만 접할 수 있었던 분단의 현실을 칠성전망대에서 두 눈으로 직접 마주할 수 있었다. 이렇게 국군의 조국 수호 의지를 몸소 느끼는 것을 시작으로 전투체력단련과 헬기 패스트로프 모형탑 훈련, 대테러 물자·장비 견학, 대테러훈련 시범, 월남파병공원 견학하는 등 다양한 병영 체험을 하였다. 1학년 김수진 학생은 “체험 기간 동안 여러 훈련을 경험하면서 내 체력의 한계에 직면하고 이를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배웠다. 그리고 친구들을 더욱 신뢰하는 마음이 커졌고 함께 협력해서 임무를 완수했을 때 뿌듯함을 느꼈다. 이번 체험이 국가안보와 치안을 위해 헌신하는 군인이 되겠다고 진로를 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포항영신고 국제지구과학 올림피아드 은메달 3개 획득

‘제16회 국제지구과학 올림피아드(IESO)’에서 국가대표로 참가한 포항영신고 3학년 권다훈, 배준용 학생이 은메달 3개를 획득했다.

국제지구과학 올림피아드는 지구과학 분야 영재 조기 발굴과 친선 도모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대회로 올해는 지난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중국에서 32개국 179명이 참가해 비대면으로 개최됐다. 권다훈 학생은 개인별 필기시험인 ‘DMT 분야’에서 은메달을 획득하고, 배준용 학생은 지진 분야 연구로 권다훈 학생과 한 팀을 이뤄 ‘NTFI 분야’에서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팀은 ‘DMT 분야’에서 은메달 4개, ‘NTFI 분야’에서 은메달 1개 및 동메달 1개를 획득해 종합 9위를 차지했다.

특히 권다훈, 배준용 학생은 “지구과학 교과동아리(지도교사 신동훈) ‘태풍의 눈’에서 정규교육 과정과 연계한 심화 탐구 학습을 통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왼쪽부터 이건희, 강민준, 권다훈(포항영신고), 우수빈, 김선우, 박현, 박현수, 배준용(포항영신고)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 바이오 분야의 최강자 입증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는 지난 8월 10일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에서 주최한 '제12회 전국 바이오기술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면서 바이오 분야의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전국 고교생 바이오기술경진대회는 바이오 기술 탐구 및 바이오관련 창업 아이디어를 주제로 참가하는 대회로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 2학년 '함박 피어나리'팀은 '식물 추출물 염색을 통한 섬유의 기능성 향상 및 의료용 섬유로서의 활용'을 주제로 대상을 받았다.

2023년 제12회 전국 고교생 바이오 기술경진대회 시상식

|일시| 2023. 9. 7.(목) 11:00 |장소| 한국바이오협회 |주최| 고용노동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주관|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바이오협회 koreaBio 한국바이오협회



경북교육청, 제44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맹활약' ✨

경북교육청은 지난 8월 16일 열린 '제44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3점(함창중앙초, 석적중, 경산과학고), 특상 4점(동양초, 문성중, 신성초, 경북과학고), 우수상 8점(정평초, 안동용상초, 도량초, 포항제철지곡초, 함창중앙초, 경산과학고, 안동동부초, 경산과학고), 장려상 7점(황남초, 봉화중, 포항제철공업고, 풍천풍서초, 오태초)을 수상해 참가자 전원이 입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이 주관한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는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발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1979년부터 개최돼 오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발명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지원청별로 발명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최초 광역 발명거점지원센터인 경상북도교육청발명체험교육관도 경주에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또 메이커교육센터에서도 메이커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우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우수상 함창중앙초 이재연



특상 신성초 권문희



금빛 꿈을 쏜다!

예천동부초, 양궁의 그랜드슬램 달성!



예천동부초 양궁부는 2023년 대한양궁협회가 주최하는 '초등 여자 양궁부 전체 대회'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9월 8일 청주 김수녕양궁장에서 열린 '제35회 회장기 전국남여초등양궁대회'를 마지막으로 대한양궁협회에서 주최한 전국남여종별선수권대회(4월), 전국소년체육대회(5월), 전국남여초등양궁대회(7월), 회장기 전국남여초등양궁대회(9월)의 4개 대회에서 모두 단체 1위를 차지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둬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양궁 명문 학교임을 입증했다.





북삼고 '수목원팀' 전국 청소년 AI 창의 경진대회서 1위 수상!

제4회 전국 청소년 AI 창의 경진대회인 '2023 AI Youth Challenge'에서 북삼고 '수목원팀'이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주)포스코DX와 (사)지능정보산업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 제안과 작품 구현을 통해 창의적이고 문제해결력을 갖춘 AI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국대회다.

북삼고 '수목원팀'(3학년 이수인, 박병목, 김원호)은 '로켓 튜브'라는 주제로 라즈베리파이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인공지능이 익수 여부를 판단해 인명 구조 튜브를 날려주는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해 대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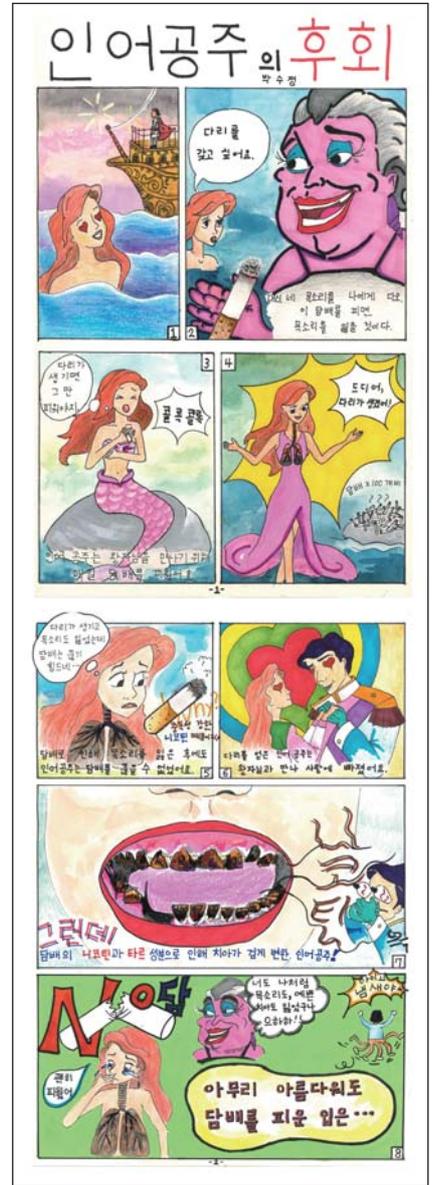
박유진 지도교사와 수목원팀 학생들



흡연 예방 우수 작품 수상작



장성고등학교 1학년 윤준원



구미봉곡초등학교 5학년 박수정



‘기적 같은 일이에요’

구미혜당학교 교사 김미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준희와 내가 ‘단디짜꿍 사제동행 해외체험 연수(대만, 2023. 8. 7.~8. 10.)’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말에 준희 어머니께서 감격에 울먹이며 하신 첫 말씀이었다.

준희는 다운증후군에 시력이 매우 나쁘다. 37년의 교육경력을 가졌지만, 여전히 장애 학생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엔 아직 나의 경력이 모자라 보인다. 더군다나 다문화가정에서 장애 학생을 둔 외국인 어머니의 절절한 심정을 가늠하기엔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다문화 장애 학생을 바라보는 편견과 선입견을 이겨내기 위해 나는 준희와 같은 다문화 장애 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번 ‘단디짜꿍 사회자: 김희경 주무관사제동행 해외체험 연수’의 기회도 그 노력에 귀한 밑거름이 되어줄 터였다. 새벽 6시, 준희는 출발 한 시간 전부터 구미 터미널에 도착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설레는 마음에 너무 좋아 밤새 잠을 설쳤다면이라도 표정을 보아하니 여전히 꿈을 꾸듯 상기된 표정이다. 공항에 도착하기까지 고개가 꺾여지도록 잠을 잔 준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갑자기 나의 껌딱지가 된다. “준희는 김미순 선생님 바라기.” 그리고 시키지도 않은 말을 계속 중얼거린다. 그런 준희를 보며 좋으면서도 체험 연수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을지 불안하기도 하다.

15팀 2기 대만팀 중에서도 준희와 나는 외딴섬처럼 색다른 조합으로 시선을 끌었다. 특수교사가 학생을 데리고 다니면서 받는 다양한 시선들에 익숙해진 나였지만 속마음 으론 준희가 주눅이 들까 걱정이었다. 그런 걱정들을 뒤로 하고 의연한 척 일정을 시작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함께 한 모든 선생님, 장학사님들은 물론 아이들 역시 모두 눈빛이 선하고 다정했다. 외딴섬인 줄 알았는데 그 눈빛들로 이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에 힘입어 우리는 남다른 활발함과 다정함으로 즐겁고 재밌는 여행을 만들어갔다. 첫날 101층 타워에서의 환호성과 야시장의 볼거리에 준희는 연신 조잘거린다. “선, 선생님, 꿈 같아요. 와, 진짜 준희는 너무 씩나요~” ‘씩’난 준희의 목소리가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 생생히 재생돼 마음이 흐뭇해진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나의 준희 뒷바라지가 끝났다. 이제는 걱정하며 마음 졸이는 준희 어머니께 사진과 함께 동영상을 보내주는 일이 남았다. 나도 못지않게 재밌었는지 사진이 100장이 넘는다. 그만큼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던 첫째 날이었다.



그리고 밝아온 둘째 날. '기적 같은 일'에 걸맞게 나와 준희는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씩씩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기차를 오래 타도, 무더운 협곡과 바다를 가도 늘 웃음이 넘친다. 아마도 이런 경험을 한다는 자체가 믿지 못할 만큼 좋아죽겠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가끔 화장실까지 따라가 보살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에 보답하듯 준희는

보는 것, 먹는 것, 즐기는 것, 함께 하는 순간순간 신기한 표정으로 즐겁게 춤추며 흥분하여 외치곤 한다. "협곡 어머어머"
"태평양 바다야 안녕,
준희가 왔다~"



"준희는 김미순 선생님 바라기" 그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한 학생들이 준희의 맹랑한 질문과 호기심 많은 참견에도 점점 따뜻한 시선과 이해를 보내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장애는 다름일 뿐'이라는 특징이 받아들여지는 교육의 현장에 있는 것 같아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비록 온천욕은 하지 못했지만, 함께 잠을 자며 보살펴주시는 선생님의 도움으로 욕조에 물을 받아 물놀이를 대신하며 서운함을 푼 준희는 둘째 날 밤도 행복한 꿈나라로 쿨쿨 여행을 떠났다.

셋째 날, 준희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기세가 되어 간다.

맑고 밝은 몸짓과 반듯한 태도는 보통 아이와 사뭇 다른 부족함을 메꾸고도 남는다. 특히, 준희의 필살기 미소는 완전 이 팀에서 으뜸이다. 대만의 살인적인 날씨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소망을 적어 천등을 날리고, 좋아하는 지질 공원에서 반짝거리는 눈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야무지게 구경을 잘했다.

얼마나 좋은지 웃음이 떠나질 않아 나 역시 제자에게 질 수 없어 더 밝은 미소를 보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 집중했다. 특히 모든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 오는 길에 준희가 보여준 용기 있는 랩과 노래 퍼포먼스는 함께 한 친구들에게 더 큰 즐거움과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울려 퍼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히 특수학교 장애 학생 하나의 체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문화 장애 학생의 한 가정에는 기적과 같은 행복이, 함께 한 모든 사람에게는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려준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

즐겁고, 재미있게!

단디 짝꿍, 경북교육 파이팅!"





별을 보며 나와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다

(도초초 가족 이동천체관측 교실 체험)

도초초등학교 교사 김동현

별의 자녀들

'우주선', '우주를 향해한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우주를 종종 바다에 비유하곤 한다. 우주가 바다라면 우주에 대해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은 모래사장에서 바닷물에 발가락을 적시는 수준일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깊고 까마득한 바다에 기꺼이 들어가려고 한다.

그는 아마 우리가 모두 별의 자녀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DNA를 이루는 질소, 뼈를 구성하는 칼슘, 혈액의 주요 성분인 철, 음식에 들어있는 탄소 등의 원자 하나하나가 모두 별에서 합성됐으니까 말이다. 별빛으로 가득한 밤하늘을 바라보면 초라함과 경외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옛날부터 전쟁, 가뭄, 전염병 등 시시각각 변하는 세간의 문제에 허덕일 때도, 우리의 눈에 변함없이 보이는 것은 하늘의 별들이었기 때문이다. 1,000억 개 이상의 은하, 그 은하 속에 평균 1,000억 개의 별, 그중 하나의 별인 태양을 공전하는 지구, 그 지구 속에 나를 생각한다면 나의 존재는 한없이 초라해진다. 하지만 수많은 별을 보고 있으면 넓은 우주 속에 내가 가진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우리가 별을 보는 이유는 현재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욕심, 증오, 걱정들을 머나먼 과거에서부터 날아온 별에게 털어놓기 위함이 아닐까?





도촌초 가족 천체관측 교실

출발지점은 제각각이지만 도촌초 교육가족이 별을 관측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지금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처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도촌초 교육가족 역시 천체관측이라는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도촌초등학교는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과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 않다. 이 귀한 기회는 경상북도교육청 과학원과 연계하여 진행될 수 있었다.

도촌초 교육가족을 위해 과학원 연구사님과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천체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과 천체 망원경 조립 방법을 알려주셨다. 날씨가 흐려 직접 조립한 망원경으로 별과 행성들을 관측하지는 못하였지만, 함께 퀴즈를 맞히고 망원경을 조립하는 가족들의 모습에는 미소가 가득하였다.

저녁을 먹고 이동식 천체투영기를 관람하였다.

가족들끼리 천체투영기 돔 안에 누워 밤하늘의 별을 실제 보다 가까이서 보았다. 별자리와 관련된 신화를 들으며 바로 머리 위 별들을 보는 경험은 정말 황홀한 경험이었다. 가족들은 함께 탄생 별자리를 아크릴 무드등에 새기고, 천체와 관련된 도서를 선물로 받으며 천체관측 교실을 마무리하였다.

가을밤 '별명' 즐기기

캠핑할 때 피우는 모닥불을 바라보는 '불명'과 물고기를 키우며 어항을 바라보는 '물명'이 유행이다. 이번 가을에는 가족끼리 돗자리 하나를 챙겨 이름 모를 공원 잔디에 누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별명'을 해보는 건 어떨까? 작은 돗자리 속 우리 가족이 세상 전부인 것처럼 느끼며 가을철 별자리인 페가수스자리와 안드로메다자리를 찾아보는 거다. 우주 공간의 광막함과 시간의 영겁에서 작은 돗자리 하나와 찰나의 순간을 가족끼리 공유하는 일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행복한 경험일 것이다. 덤으로 별을 보며 더 큰 꿈을 꾸는 아이의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이다. ✨





| 공감 더하기 |

온 세대
소통 나누리
소통·공감의 날



세대 간 이음 소통·공감의 시간, '온 세대 소통 나누리'

경북교육청은 9월 1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과 기성세대, 중간세대, MZ세대 간에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소통·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사회자: 김희경 주무관

“교육감님~ 오늘 온 세대 소통 나누리에 참여하는 세대 대표들에게 ‘업무상 불이익이 없다’라는 것들 전 직원분들 앞에서 약속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예, 선서합니다~!”



기성세대 예산정보과 강정아 사무관

“모두 즐겁게 이 시간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세대 감사관 정승열 주무관

“오늘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제가 솔직하지 못하게 답변할 바엔 말하지 않겠습니다!”



MZ세대 체육건강과 김부성 주무관

“MZ세대를 가장 잘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떨리지만 소통의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중간세대 감사관 정승열 주무관

“선배가 먹을 것을 사준다고 할 때 가장 싼 메뉴 vs 먹고 싶은 비싼 메뉴 어떤 걸 고르나요?”

A MZ세대 체육건강과 김부성 주무관

“선배가 사주신다고 하면 비싼 메뉴를 먹고 싶지만, 여러 번 또 언어먹어야 해서 싼 거 먹으면 좀 여러 번 사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싼 메뉴를 고르겠습니다.”

Q MZ세대 체육건강과 김부성 주무관

“직장에서의 성공 vs 워라벨 확보 어느 것이 중요할까요?”

A 중간세대 감사관 정승열 주무관

“처음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심적 부담감이 컸었어요.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퇴근 후나 주말까지 안고 갔어요. 결혼하고 애를 낳고 본청에서 10년을 생활하다 보니 제 생각과 주변 환경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엔 실수하면 자책을 많이 하면서 감정적인 소모를 많이 했는데, 요즘엔 자책보단 ‘되풀이하지 말자!’라고 반성하고 감정적인 에너지를 오히려 문제 해결에 더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직장과 개인의 삶이 자연스럽게 조화가 되어야 행복한 것 같습니다.”

MZ세대 체육건강과 김부성 주무관

“답변에 큰 감명을 받아서 마음에 듭니다.”

Q 중간세대 감사관 정승열 주무관

“나 정말 교육감이 되길 정말 잘했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언제인가요?”

A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매일매일 보람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들을 위해 30만 원씩 지원금을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분들 어렵다고 돈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저는 학생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돈을 결제할 수 있다는 게 보람된 일이고 나날이 보람으로 삽니다.”

Q 기성세대 예산정보과 강정아 사무관

“중간세대의 가장 큰 고충은 무엇인가요?”

A 중간세대 감사관 정승열 주무관

“가장 크게 느끼는 고충은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너무 잘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나이로는 기성세대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어 기성세대가 잘 이해되고, MZ세대는 제가 몇 년 전까지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또 이해됩니다. 이해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소통이 잘 되다 보니까 역으로 기성세대도 저한테 거는 기대가 크고 MZ세대도 거는 기대가 큼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일하는 시간 내내 위에 눈치, 아래 눈치... 업무시간이 끝나고 집에 가면 아내 눈치, 어느 날은 잠자리에 누웠는데 ‘오늘 종일 눈치를 봤구나! 삶이 너무 고단하다!’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사회자: 김희경 주무관

“굉장히 부담감이 느껴지는 답변이었던 거 같습니다.”

기성세대 예산정보과 강정아 사무관

“정승열 주무관님~앞으로 제가 잘하겠습니다.”

사회자: 김희경 주무관

“아무래도 기성세대는 MZ세대와 중간세대를 모두 경험하신 세대이다 보니 지나온 시간만큼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기성세대의 귀한 경험과 지혜는 후배 세대들의 큰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직장 동료는 소속은 같지만 서로 생각하는 것도 누리는 가치도 너무나 다르다. ‘온 세대 소통 나누리’ 같은 세대 간의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할 것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가 모두 조화롭게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을에 듣는 **청명한 우리말** 이야기

화산중학교 교사 김효주

가을하다

- 벼나 보리 따위의 농작물을 거두어들인다.
- 때늦은 태풍에 농부들이 서둘러 가을하기 바쁘다.
- 비슷한 말: 가을걷이하다 / 수확하다 / 추수하다

한물

- 채소, 과일, 어물 따위가 한창 수확되거나 쏟아져 나올 때
- 요즘 복숭아가 한물이니 실컷 먹어라.
- 비슷한 말: 성수기 / 한철

아람

- 벼나 보리 따위의 농작물을 거두어들인다.
- 때늦은 태풍에 농부들이 서둘러 가을하기 바쁘다.
- 비슷한 말: 가을걷이하다 / 수확하다 / 추수하다

떡비

- 밤이나 상수리 따위가 충분히 익어 저절로 떨어질 정도가 된 상태. 또는 그런 열매.
- 흔들지도 않은 밤나무 가지에서 남은 밤송이가 저 혼자 아람이 벌어져 떨어져 내렸다. 황순원, 「학」

건들장마

- 초가을에 비가 오다가 금방 개고 또 비가 오다가 다시 개고 하는 장마
- 그 무렵 석이는 건들장마가 지나는 째째이 병도와 어울려 다니며 술을 마셨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된서리

- 늦가을에 아주 되게 내리는 서리
- 된서리 때문에 벼 수확에 지장이 생겼다.
- 된서리를 맞다 → 관용구: 모진 재앙이나 억압을 당하다.

가을과 관련된 순우리말 단어

추석의 우리말인 '한가위'의 어원

한가위는 음력 팔월 보름날에 속하는 우리나라 명절이다. 신라의 가배(嘉俳)에서 유래하였다고 하는데, 가배는 추석을 일컫는 고어(古語)로 '가위'라는 우리말을 이두식으로 표기한 것이다. '크다'라는 뜻의 '한'과 결합하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한가위'로 표현하고 있다.

송편의 어원

송편은 소나무 송(松)과 떡 병(餅)자를 써서 '송병'으로 불렀으나 '떡'을 나타내는 고유어 '병'과 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송편으로 부르게 되었다. 특히 추석 때 먹는 송편은 올벼(제철보다 일찍 여무는 벼를 나타내는 우리말)를 수확한 쌀로 빻어 '오려송편'이라 부르기도 한다.

가을과 관련된 속담

가을비는 턱 밑에서도 굶는다

그때그때의 잔걱정은 순간적이어서 곧 지나가 버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전어 굶는 냄새에 나갔던 며느리 다시 돌아온다.

전어 굶는 냄새가 하도 고소해서 시집을 버리고 나가던 며느리가 마음을 돌려 돌아온다는 뜻으로, 가을 전어가 대단히 맛이 좋음을 이르는 말

가을 물은 소 발자국애 고인 물도 먹는다.

가을 물이 매우 맑고 깨끗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가을에 해당하는 9~11월을 나타내는 순우리말

9월: 열매달 - 가지마다 열매 맺는 달

10월: 하늘연달 - 밝달뵈에 아침의 나라가 열린 달

11월: 마름달 - 가을에서 겨울로 치닫는 달

표준어는 아니지만, 국립국어원의 개방형 사전 우리말샘에 수록된 단어입니다.

※2023 가을호의 모든 자료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한국민족대백과사전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누리소통망(SNS)에 즐겨오세요!



경상북도교육청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메타버스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